

# 광주 옛 상무소각장, 복합문화타운으로 '소생' 한다

### 광주시, 문화재생 설계공모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작품 선정 교양·소통·문화 공간...인근 도서관 등 지하 연결 개방성 강화

도심 속 흉물이었던 옛 상무소각장이 문화 재생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광주시는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 내 '공장동 문화재생사업' 설계공모에서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김상훈)의 '소멸에서 소생으로'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심사는 관내·외 대학교수, 건축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응모작품 중 공간계획, 배치계획, 경관계획, 리모델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가장 우수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별도의 4개 작품은 입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은 '소멸에서 소생'을 주제로 소각장의 재생을 통해 공원과 광주전, 도시와 자연을 비롯한 상무지구 일대의 순환을 이루내고, 소각장 동 부지 내 인접지에 건립되는 대표도서관과 지하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했다. 특히 경사대지를 이용한 접근성과 주차장을 지하로 구상해 지상을 공원화하고 상무지구와 개방감을 강화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기존 소각장 내부 보존 설비시설들을 조정적으로 구성해 재생건축의 장점을 살렸다. 외부 디자인

인은 소각장의 기존 외벽에 투과성이 있는 재질을 덧대 간결한 형태로 외피를 형성하고, 기존 형태가 실루엣으로 투영되는 디자인을 도입해 내부의 역동성을 드러내며 동시에 프레임으로 정리해주는 역할을 특징있게 평가한 점도 좋은 점수를 얻었다.

광주시는 이번 당선작과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설계과정에서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내부공간 구성과 외부디자인 등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김요성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협오시설이었던 상무소각장이 문화공간으로 재생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교양·소통·문화 복합문화타운으로 탈바꿈하고 광주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년 12월 폐쇄된 상무소각장 부지는 '복합문화커뮤니티타운'을 조성하기로 하고, 우선사업으로 부지 내 기존 관리동과 북지동 건물을 철거한 뒤 그 자리에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설계를 거쳐 현재 공사업체 선정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너릿재에 놀이터 생겼어요 1일 오전 광주시 동구가 도토리나무와 밤나무, 다람쥐와 반딧불이 등 다양한 동·식물이 분포된 선교동 너릿재 자락에 영·유아 놀이 공간인 '데굴데굴 너릿재 유아숲 체험원'을 개원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광주시, 평등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부당”

### 법원,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손 들어줘

법원이 광주시의 평등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현)는 1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 앞서 현대엔지니어링 측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광주시의 처분이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1998년 평등 준공업 지역 지정 이후 개발 요구 민원이 지속되자 일대를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문화 콘텐츠 등 미래 전략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한류 문화콘텐츠 육성을 골자로 21만㎡ 부지에 1만 5000여 규모의 공연장, 스튜디오, 교육·창업 지원 시설 등을 설치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발 계획에 아파트(5000여 세대)와 주상복합(3000여 세대) 비중이 높아 아파트 위주 난개발 우려와 함께 한류 사업 실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난개발 방지 등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해 6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음 주 초재 판결문을 받으면 변호사와 검토해 항소 여부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 농수축산물 판촉·관광 활성화 등

전남도가 지역 농수축산물을 사주고 지역 관광지를 자주 방문하는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100만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고향사랑 기부제’까지 염두에 두고 지역의 새로운 미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복안이다.

전남도는 1일 “이달부터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신청을 받아 지역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대규모 후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 외에 거주하면서 전남도를 사랑하는 누구나 서포터즈에 가입할 수 있다. 서포터즈 가입은 9월 8일 개시하는 전남도청 누리집(https://www.jeonnam.go.kr/)의 서포터즈 신청함을 통한 온라인 방식과 신청서 작성을 통한 서면 방식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가을 레저 즐기기 좋은 ‘남도’

### 전남도, 나주 죽산보 경비행장 등 9월 추천관광지 선정

전남도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에서 여행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이색 레저 체험을 안전하게 즐길 곡성 기차마을 페러글라이딩, 영암 국제카트경기장, 나주 죽산보 경비행장을 9월 추천관광지로 선정했다.

곡성 기차마을 페러글라이딩을 타면, 550m 상공에서 섬진강과 지리산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짜릿한 체험이 가능하다. 한국관광공사 우수 레저스포츠 체험시설로 선정될 만큼 관광객에게 이미 소문난 곳이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부터 청소년 안전 활동 인증을 받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다.

체험 비용에 영상 촬영비가 포함돼 평생 남을 추억을 한편의 영상으로 간직할 수 있다. 특히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늘을 날 수 있어 주민들도 인정한 곡성 스타가게 1호다. 페러글라이딩 체험 관광객은 곡성 기차마을 입장부터 레일바이크, 증기기관차, 암벽타기 등을 30%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다.

영암국제카트경기장은 월드 챔피언십 그랑프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2010~2013년 4년간 개최했던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의 축소판이다. 국제 규모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레이스 카트 전용 트랙이다.

카트 체험은 2종류다. 레저 카트는 20km/h 속도로 천천히 주행하며 카트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스포츠 카트는 60km/h의 빠른 주행으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다. 스포츠 카트는 운전 면허 소지자만 체험이 가능하다. 카트 탑승 요령에 관한 교육과 안전 장비가 갖춰져 안전하게 스피드를 즐길 수 있다.

나주 죽산보 경비행장은 영산 8경 중 석관정, 황포돛배 선착장, 느리지전망대, 영산강하구인, 반남고분 등 5경을 스카이뷰로 즐길 수 있다. 또 경량항공기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행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비행 체험 코스는 탑승 시간별로 나뉜다. 10분간 비행장 상공을 비행하는 1코스, 20분 동안 황포돛배 선착장까지 둘러보는 2코스, 30분간 느리지전망대까지 돌아보는 3코스, 40분간 반남고분을 둘러보는 4코스, 영산강 끝자락 하구언까지 갔다오는 5코스로 이뤄졌다.

박용화 전남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체험 관광을 선호하는 것이 여행 추세라며 “레저 체험에 참여할 때는 안전 교육을 철저히 진행한 후 가족·연인과 함께 안전하게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수소차 보조금 신청하세요

### 광주시 6일부터 대당 3250만원

광주시는 2022년 상반기 수소차 150대 보급에 이어 130대 추가 보급을 위해 6일부터 보조금 지급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공기정화 기능도 있어 온실가스 감축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꼽힌다.

2022년 하반기 추가 보급물량 130대 중 117대는 일반 시민 및 법인에게 보급되며, 13대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등이 우선 보급 대상자다.

수소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구매 신청 전일까지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으로 광주시에 연속해 90일 이상 거주한 자 또는 광주시 내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과 법인·단체 등이며, 구매 신청은 1대로 제한된다.

수소차 출고 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며 차량 1대당 국비 2250만원, 시비 1000만원 등 총 325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수소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식을 작성해 차량 계약 시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광주에는 수소충전소 6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10월 매일수소충전소(민간사업자), 12월 벽진수소충전소 1기 증설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침단지점, 동광주지점, 각화지점